

Rhodia, 자동차용 Polyamide 개발

보디 판넬용으로 특수 충전제 사용 ... 전착도장 가능해 도막두께 균일

Rhodia Engineering Plastics이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보디 판넬용 폴리아마이드(Polyamide)를 개발·출시했다.

Rhodia Engineering Plastics은 4월2일 자동차 보디 판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Technyl A 238P5 M25 BK 5N>라는 새로운 폴리아마이드 그레이드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순수 PA 66 폴리머에 특수한 충전제를 사용해 Matrix 구조를 개량해 만든 <Technyl A 238P5 M25>은 전착도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섭씨 200도 이상의 코팅 온도를 견딜 뿐만 아니라 충격특성, 외관 및 성형성 등을 갖추었다.

특히, 고온에서의 물성이 탁월해 대형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서도 균일한 도막 두께를 얻을 수 있는 점은 자동차 Maker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e-코팅 프로세스의 온도를 섭씨 200도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탁월한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 도전성 프라이머(Primer) 없이도 전착도장이 가능하며 페인트 부착 효율이 높아져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휘발성 화학성분(VOCs)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Rhodia Engineering Plastics은 보디 판넬, 연료주입 구 덮개, 로커 휠라, 후론트 그릴 및 기타 외장 트림류 등 인라인 및 온라인 도장 모두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에 <Technyl A 238P5 M25>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리옹에 본사를 두고 있는 Rhodia Engineering Plastics은 세계적인 폴리아마이드 생산기업으로 유럽, 북미, 남미 및 아시아에 생산공장과 기술개발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4/07>